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만약 피부착색으로 건디기 힘들다면 의료진과 상의
합니다.



앞선 의술 더 큰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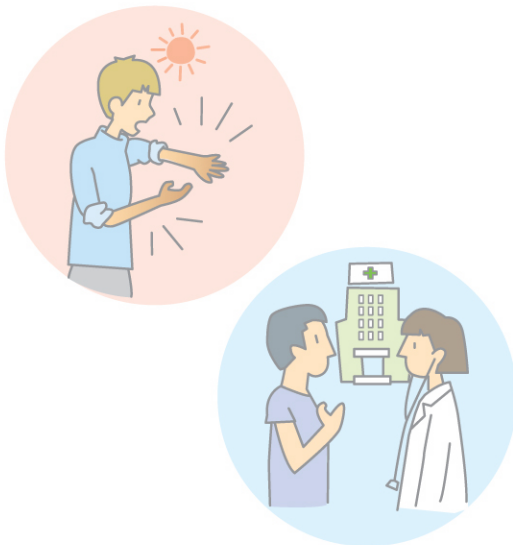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138-7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88, Olympic-ro 43-gil, Songpa-gu, Seoul 138-736, Korea
대표전화 : 1688-7575 홈페이지 : <http://cancer.amc.seoul.kr>

우리의 꿈은
당신의 건강입니다

항암화학요법

자가관리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증상 설명

일부 항암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들의 피부를 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손톱과 구강 점막, 혀, 손바닥과 발바닥이나 정맥 혈관을 덮고 있는 피부가 검게 변할 수 있습니다.

피부착색은 치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부가 검어진다고 해서 항암화학요법을 중단하거나 항암제의 용량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피부착색은 치료가 끝나면 수개월에 걸쳐 점차 없어지거나 없어지지만, 개인에 따라 피부 착색이 영구적으로 남기도 합니다.

대처 방안

- 피부착색이 될 수 있는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직사광선을 피합니다.
-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외출을 삼가합니다. 흐린 날이라 할지라도 낮 동안에는 직사광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외출할 때 주의합니다.
- 햇빛이 있는 낮에 외출할 때 신체 노출 부위에 자외선 차단 크림과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는 입술 보호제를 바릅니다.

- 외출할 때는 햇빛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얼굴, 등, 팔, 어깨와 같은 노출 부위를 보호합니다.
 - 긴 소매옷과 긴 치마나 바지 착용 (흰색이나 밝은 색의 옷)
 - 장갑, 양말, 챙이 넓은 모자 사용
 -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양산 사용

